

빛그린산단 인근 건축 제한, 국가산단 활성화 걸림돌

5개 구 중 유일하게 광산구 삼도동 일대만 계획관리지역 여건 바뀌었는데 20년전 조례 적용...배후지역 개발 시급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 인근 지역이 광주시의 과도한 건축행위 규제에 묶여 기본 재산권인 토지 이용조차 가로막히면서, 국가산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빛그린산단은 123만여평의 면적을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넘쳐나면서 배후지역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빛그린산단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입주했다더라도 공장 부지가 협소한 업체들은 산단과 가까운 광산구 삼도동 일대에 제품 보관 등의 물류유통을 위한 창고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빛그린산단 인근 배후지역인 광산구 삼도동 일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광주시 조례로 인해 물류창고조차 신축할 수 없

다는 게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광주시는 해당 지역을 도시외(농촌 등)계획관리지역으로 보고 자연취락지구의 특성을 감안해 2000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이 건축행위를 제한받는 곳은 광산구 삼도동을 비롯한 삼거동, 양동, 동호동 등 10개 행정동에 속해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만 585만 5609㎡에 이른다.

도시외지역의 계획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 원주민과 건축행위 등을 놓고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규제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빛그린산단 인근 지역은 조례 제정 이후 20년이 넘어가면서, 도시외지역인 농촌마을이 거

의 사라지는 등 지역여건이 크게 바뀐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 사이에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 조정을 폐지·보완하고, 빛그린 산단의 물류 유통을 원활하게 해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광주시 조례는 광주시 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광산구 삼도동 일대 계획관리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민 김모(61)씨는“국가산단 바로 앞 계획관리지역에 창고를 짓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례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인 만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도시계획 관계자도 “근본적으로 광주시가 결정 사항이지만, 20여년전에 제정한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현시 여건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수완동 발전 위해 힘써 준 주민들에게 감사 '수완동민의 날' 기념식 성료...유공구민 표창·수완동민상 수여



광주에서 가장 젊은 행정동인 광산구 수완동이 제9회 수완동민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수완동은 수완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정비한 곳으로, 광주시 97개 행정동 중 인구가 가장 많고 10대 인구 비율도 가장 높다.

수완동 개동 12주년을 기념해 지난 16일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수완동민의 날 기념식은 수완동민의 날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희중)에서 마련했으며,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구민 표창 및 수완동민상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사진>

수완동민상은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으며 지역발전 부문은 수완동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총장으로 마을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천한 이미경(54) 씨가 선정됐다.

문화예술훈 부문 수상자는 민광(71) 씨로 수완호수공원 음악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축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훈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누적 기부금 1300만 원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과 후원을 해온 오경자(59)씨는 사회복지 부문, 3700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을 기록한 정복남(51) 씨는 자원봉사 부문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근호 수완동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도 수완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주민들께서 서로를 다독여주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최근 광산구의 한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식품 안전 환경 구축

광산구,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광주 광산구는 “민선 8기 시민이 공감하는 식품 안전 환경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일상 속 건강한 생활의 기반을 위한 안전한 식문화 정착 ▲사각지대 중점관리를 통한 믿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변화하는 먹거리에 대응한 안전한 식품환경 제공 및 관리 ▲폐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 등 4대 정책 목표를 내걸었다.

광산구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식품위생 서비스, 새로운 지도문화 등을 위한 1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와 홀로 식사를 즐기는 ‘혼밥문화’에 발맞춰 혼자라도 누구나 편안히 식사할 수 있는 ‘혼밥 식당’ 지정 운영, 배달음식 수요 증가를 반영한 ‘QR코드 활용 안전한 배달음식’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QR코드는 해당 업체의 조리 과정과 음식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담은 것으로, 광산구가 제작·배부해 음식 배달 시 QR코드를 함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또 다양한 외국인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생관리 지원,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어린이급식소 스마트 관리, ‘야외 어린이 식중독 체험관’ 운영, 여성안심숙박, 음식점 앞마당, 방석 세탁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대면, 1인, 배달 중심의 달라진 소비문화에 맞춰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 공중위생업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자립준비청년들 사회 정착·안정 자립 돕는다

광산구, 동행정복지센터·유관 기관 등 추진단 구성 협력

광주 광산구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의 사회 정착과 안정적 자립을 위한 ‘함께하는 자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접수조사를 벌인 결과 8월 말 기준 광산구의 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은 99명으로 파악됐다.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57명이 복지 수급을 받고 있으며, 42명은 탈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취업한 청년은 55명이며, 나머지 44명 중 14명은 대학생, 27명은 미취업 상태였다.

광산구는 이 같은 현황을 토대로 기존 지원 정책과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민해 ‘보호종료 아동 함께하는 자립’ 프로젝트라는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여성아동과 복지·일자리 관련 부서를 비롯한 21개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민관협력기관, 외부 유관기관까지 아우르는 자립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해 조직간 효율성도 높였다.

추진단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부서·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광산구는 현재 만 18세 이후 시설을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5년 아동에 대해선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LH, 광주도시공사 등과 연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설을 퇴소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선 세심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 지역 주요시설 현장점검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과 19일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제27회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된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안전위원회 운영일 위원장을 비롯한 박현석 부위원장, 김명수·김은정·강한솔 위원 등이 참여해 광산구 서봉파크골프장과 광주MBC 비아송신소를 점검했다.

지난 16일 정식 개장을 앞둔 서봉파크골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개선사업이 진행중인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19일 광주MBC 비아송신소를 찾은 위원들은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송신소 부지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향후 부지 활용 방향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광산구와 광주문화방송은 지난 7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MBC 비아송신소 부지 일부를 임시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차장 조성 공사는 250면 규모로 진행중이며 오는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운영일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장은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